

# “장애마저도 축복이다”



취재지원 :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 삶의 소중함 느끼게 하는 강사되고파

제 삶을 통해서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단 한사람이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다는 목표를 안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나라에서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삶의 소중함과 기쁨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 현재 위치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차근차근 인생계획을 추진해나간다면 삶 그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재근로자 백금기씨>

## 세계화전략연구소 백금기 실장

청년은 스무 살 한창 나이에 감전재해로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잃었다. 또 사고는 그가 소중히 키웠던 꿈과 희망을 순식간에 절망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청년에게 남은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동정 섞인 세간의 시선, 자살로 가득한 잠넬뿐이었다.

그렇게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청년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다.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멘토를 만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늦은 나이에 대학의 문을 두드렸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힘겨운 도전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는 방송인이자 경영컨설턴트, 동기부여강사로 최근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화전략연구소 백금기 실장의 이야기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 날, 밝은 목소리와 환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인생역정을 들어봤다.

## 감전사고로 온 몸에 화상

그는 전남 장성군 어느 시골 가난한 농가의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가난했기에 정규 교육을 마치기 무섭게 생활 전선에 나서야만 했다. 결눈질로 배운 전기공사일이 그의 밥벌이었다. 안전장구 하나 지급받지 못하는 당시 작업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나 다른 일에 비해 보수가 좋았기에 직업선택에 있어 고민은 없었다.



그렇게 전기공으로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선임자가 그에게 전신주에 오를 것을 지시했고, 선임자의 지시대로 전선에 왼손을 대는 순간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몸에 불이 붙었다. 22,900V의 전기가 그의 몸을 관통했다.

온 몸에 걸친 4도 화상. 의사는 죽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고 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지면서 그는 왼쪽 손과 발이 사라진 자신의 몸을 마주해야 했다. 9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의사는 그에게 의족을 끼고 걸음을 연습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없던 그는 부모가 힘들게 구해 온 의족을 집어던져버리기 일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족 제작자가 직접 의족을 들고 왔다. 의족을 든 제작자의 발도 의족이었다. 차마 의족을 전처럼 던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사고가 난지 1년 만에 의족을 끼고 다시 두발로 일어섰다.

###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를 꿈꾸다

퇴원을 한 그를 친구들은 인근 야시장으로 데려갔다. 그보다 더 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그에게는 작은 용기가 생겼다. 하지만 세상은 장애인인 그에게 쉽사리 기회를 주지 않았다.

사장을 붙잡고 일을 못하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일만 시켜달라고 사정했다. 그렇게 어렵사리 기회를 잡으면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 운전 을 배워 대리운전도 하고, 주차장 관리원일도 하고, 음료수 도매일도 했다. 술한 도전 속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생겼지만 막연한 두려움도 커져만 갔다. '이런 허드렛일로 평생 보내야 하나' 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런 그에게 2004년 인생을 뒤바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연한 기회로 국내 최고의 경영컨설턴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영권 박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박사는 그에게 남은 평생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알려 험겨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박사는 보다 높은 학식을 쌓을 것을 조언해주며,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맺고 직접 그를 이끌어 주기 시작했다.

멘토의 가르침에 힘입어 그는 33살의 늦은 나이에 대학(경영학과)에 도전했다. 졸업을 하자 연이어 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는 석사(사회복지학)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그는 학업 중 각종 기업체, 학교, 방송사 등의 초청을 받아 강단에 섬으로써 동기부여 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앞으로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부디 계획대로 꿈을 이뤄 더욱 많은 이에게 희망을 선사해주길 기대해본다. ☺